도서관 자리가 부족해요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에 학생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이지수 기자)

도서관 열람실 좌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학생 수 대비 열람실 좌석 수를 따졌을 때, 10명 중 8.8명은 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재학생 수 대비 열람실 좌석 수는 ▲경희대 12%(2,467석) ▲고려대 28%(4,476석) ▲건국대 13%(1,715석) ▲서울대 31%(4,541석) ▲성균관대 24%(3,313석) ▲연세대 23%(3,459석) ▲이화여대 13%(1,707석) ▲중앙대 24%(3,406석) ▲한국외대 10%(1,466석)이다.

우리신문은 단과대학별 자습 공간 부족을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중앙도서관(중도) 열람실조차 좌석 수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최윤희 팀장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건물의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에 절대적인 수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제한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직원 사무실 공간을 그룹 스터디룸으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956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캠퍼스(국제캠)에 비해 1,511석을 보유한 서울캠의 열람실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캠에는 현재 중도 731석, 의학계열 도서관 522석의 열람실 좌석이 존재한다. 의학계열 도서관은 일반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시간도 비교적 짧아 주로 해당 계열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학계열 학생들이 중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서울캠의 열람실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울캠 소통간담회에서 의과대학 학생회 강기범(의학 2019) 회장은 "계열 도서관의 경우 현재 의과대학이 존재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해당 계열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며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의학계열 도서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중도를 방문해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건을 내놓은 이유를 묻자 강 회장은 "중도 열람실 좌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의학계열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면 수요가 늘어 서울캠 열람실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안서현(국어국문학 2021) 씨는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거의 좌석이 다 차는데 시험 기간에는 자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침부터 사람이 다 차서 앉기 힘들다"며 "24시간 운영으로 해도 한번 앉은 사람들이 잘 안 나가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박보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씨는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열람실이 몇 개 없어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며 "시험기간이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 쓰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수(물리학 2020) 씨는 "확실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니까 도서관 티켓팅이라는 말 생길 정도로 발권 문제가 심해진 것 같다"며 "비대면일 때도 1열람실이나 3열람실은 발권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시험 기간에는 더 심해질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 팀장은 "의학계열 도서관 5층 공간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한다"며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설문조사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중도 2층과 제4열람실도 본부에 리모델링 요청을 드렸고 계획수립을 위해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2면에서 이어짐

이번 문과대 보궐선거는 '정도' 선거 운동본부(선본)와 '문득' 선본이 출마했다. 그러나 '문득' 선본은 중도 사퇴했다. 이후 '문득' 선본의 최수연(영어영문학 2021) 부후보는 투표소 뒤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대자보는 상대 선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 투표소 앞에 사퇴한 '문득' 선본의 정후보였던 유수하(응용영어통번역학 2022) 씨가 선관위와 함께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도 발생했다. 문과대에 재학 중인 21학번 A 씨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두고서 선관위와 놀고 있는 모습은 누가 투표를 하나 보겠다는 의도로 느껴졌다"며 "문과대 재학생들 중 무서워서 투표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 서 있었던 '정도' 선본 임 부후보 역시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등 유 씨와 선관위들이 모여 있어 앞에 서 있기 불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은찬(철학 2022) 선거관리위원장은 문과대 로비에 있다고 해서 일반 학생을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유 씨는 "투표소 앞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잠깐 이야기를 하다 선관위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유권자분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면 사과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궐선거가 무산된 이후 한은찬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장 직책을 사퇴했다.

2023학년도 4월 교수학습개발원 학습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대 상	비 고
신입생 마중물 학습법특강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기 및 요약전략)	03.13.-04.12.	03.07.-04.10.	우리대학 신입생	
1차 학습법특강(A+리포트 작성법)	04.10.-05.14.	04.05.-04.28.	학부생	
학습전략클리닉	04.10.-04.24.	05.03.-05.17. 16시-18시 [3회]		선발
발표클리닉	04.10.-04.28.	5월 중 [4회]		
단과대학별 맞춤형 학습법 특강	03.27.-06.30.	03.27.-06.09.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Campus 접속 ➡ '비정규 강좌', '학습법' 클릭 ➡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문의처 Email s.ctl@khu.ac.kr TEL 서울 02-961-0901~2, 국제 031-201-3951~5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owards Global Eminence